

# 간호대학생의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미혜<sup>1</sup>, 김혜진<sup>2\*</sup>

<sup>1</sup>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Emergency Contraceptives Pills For Nursing Students

Mi-Heyi Kim<sup>1</sup>, Hye-Jin Kim<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J도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6.78 \pm 2.46$ 점(12점 만점), 태도는  $3.04 \pm 0.64$ 점(5점 만점), 사용의도는  $4.30 \pm 0.90$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관계 경험여부, 응급피임약 인지여부, 응급피임약 교육경험,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는 사용의도를 총 1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272, p<.001$ ). 결론적으로 필요시 응급피임약의 적절한 사용으로 불필요한 처치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피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응급피임약, 지식, 태도, 사용의도,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us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for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ed using the online questionnaire for 195 nursing students located in J province from February 3, 2021, to February 25,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the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the average knowledge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was  $6.78 \pm 2.46$  out of a total of 12 points, the average attitude  $3.04 \pm 0.64$  out of a total of 5 points, and the average intention to use  $4.30 \pm 0.90$  out of a total of 5 points. These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Intention to use emergency contraceptives pills and accounted for 13.4% of the varianc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emergency contraceptives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treatment through appropriate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s pills when necessary. And a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program is suggested.

Key Words : Contraceptives, Knowledge, Attitude, Intention,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325khj@cs.ac.k)

Received January 6, 2022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January 24,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혼전 성경험 비율은 성의식에 대한 개방 풍조와 가치관의 변화,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성상 품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최근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67.7%[2], 대학생의 69.7%[3]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56.7%만이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 중 11.6%가 임신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95%가 임신중절수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4,5]. 현재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피임과 성감염 예방을 위해 콘돔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 최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과 효과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전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콘돔 사용 중 찢어지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ECPs)은 전세계 선진국 39개국 중 15개국이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성교 후 수정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원리를 이용한 피임제이다[7]. 1996년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되었으며,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 피임의 실패, 성폭력 등 불시의 성행위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7]. 성교 후 72시간 내에 빨리 복용할수록 피임에 효과적이며, 원치 않는 임신의 50~95%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미국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낮추기 위해 2009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17세 이상이면 의사처방 없이 응급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8], 스웨덴의 경우도 원치 않는 임신의 절반정도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 직결되며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수술 대신 응급피임약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6]. 응급피임약의 한 종류인 노래보(정)을 개발한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응급피임약의 배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여학생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처방전 없이도 응급피임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9]. 학교의 보건교사는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와 사전피임약 복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복용법, 부

작용, 상습적 복용에 대한 경고 등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0]. 응급피임약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우리나라에서도 응급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과 젊은 남녀사이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9]. 그러나 일반 피임약의 10배에 달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 습관적으로 복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여성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11].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심한 생리출혈, 메스꺼움, 하복부 통증, 피로감, 두통과 비정기적인 출혈이 있으며[11] 남용할 경우 불규칙한 월경혈이 발생하거나 조기난소부전증으로 불임과 폐경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정도, 태도와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13-15],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용증가의 추이분석,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피임과 관련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실천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또한 성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성관련 특성은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9]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과 미혼여성들은 응급피임약 관련 지식 정도가 낮았고 응급피임약의 장점이거나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5].

필요시 응급피임약의 적절한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 시 인공임신중절수술시행 확률을 줄일 수 있는 2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성교육 주체이자 보건의료의 주역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용의도를 파악하고 응급피임약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응급피임 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험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험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설정 후 중간효과크기( $f$ )=0.15, 검정력( $1-\beta$ )=.95, 유의수준( $\alpha$ )=.05로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수가 194명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195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J도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owball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여 총 195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방법과 목적을 읽고 동의한 후 모바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 2.4 연구 도구

#### 2.4.1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험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 성별, 현재 학년, 종교, 동거인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험관련 특성은 상관계 경험여부, 응급피임약 인지여부, 응급피임약 사용경험, 응급피임약 교육경험, 응급피임약 교육 요구도, 피임 준비도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4.2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Kang과 Moneyham[21]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12문항으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에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KR-21=.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KR-21=.71$ 로 나타났다.

#### 2.4.3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Kang[22]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12문항으로 남용의 두려움, 건강염려, 구입의 용이성의 3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 2.4.4 응급피임약 사용의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사용의도는 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격험관련 특성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험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분석하였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도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owball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로 시행되었다. 설문지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

명문에 제시하였고 온라인 상에서 동의하면 설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도중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가 사용됨을 알렸다. 수집된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 후 연구 종료 후 3년 뒤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인 특성과 성경험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21.7세였으며, 21세가 87명으로 전체의 44.6%로 나타났다. 남자는 13명(6.7%), 여자는 182명(93.3%) 이었으며 1, 2학년이 98명(50.3%), 종교가 없는 경우가 117명(60.0%),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73명(88.7%)으로 가장 많았다. 성경험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7명(90.8%),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5명(69.2%)로 높게 나타났다. 이전 응급피임약 사용경험은 없는 경우가 181명(92.8%),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경험은 있는 경우가 101명(51.8%)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명(88.2%), 피임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명(29.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s, & Intention to use ECPs according to General & Sexual related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Knowledge			Attitudes			Intention to use ECP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eral Characteristics											
	Average	21.73±0.86									
Age(year)	20	6(3.1)	6.50±3.39	7.378	<.001 <sup>†</sup> (a<c<b)	3.06±0.23	4.035	.008 <sup>†</sup> (b>c)	4.16±0.98	1.439	.233
	21 <sup>a</sup>	87(44.6)	5.93±2.60			3.07±0.70			4.31±0.85		
	22 <sup>b</sup>	55(28.2)	7.58±2.06			3.21±0.60			4.47±0.79		
	23 <sup>c</sup>	47(24.1)	7.48±1.97			2.78±0.52			4.10±1.08		
Gender	Male	13(6.7)	6.84±2.54	0.085	.932	3.25±0.57	1.252	.212	4.15±1.21	-0.612	.541
	Female	182(93.3)	6.78±2.46			3.02±0.64			4.31±0.88		
Grade	1.2st <sup>a</sup>	98(50.3)	6.07±2.62	9.640	<.001 <sup>†</sup> (a<b, a<c)	3.02±0.64	5.332	.006 <sup>†</sup> (b>c)	4.26±0.90	4.873	.009 <sup>†</sup> (b>c)
	3st <sup>b</sup>	55(28.2)	7.72±2.05			3.23±0.59			4.58±0.59		
	4st <sup>c</sup>	42(21.5)	7.23±2.04			2.81±0.62			4.02±1.13		
Religion	Christian <sup>a</sup>	58(29.7)	6.36±2.71	1.780	.152	2.83±0.54	3.280	.022 <sup>†</sup> (a<b)	4.17±1.04	.945	.420
	Catholic	9(4.6)	5.88±2.80			2.89±0.48			4.33±0.50		
	Buddism	11(5.7)	6.36±1.56			3.16±0.62			4.63±0.50		
	None <sup>b</sup>	117(60.0)	7.11±2.34			3.14±0.67			4.33±0.88		
Inmate	Family	173(88.7)	6.69±2.45	1.277	.281	3.05±0.63	4.288	.015 <sup>†</sup> (a>b)	4.26±0.93	1.910	.151
	Alone <sup>a</sup>	10(5.2)	7.10±2.23			3.37±0.56			4.50±0.70		
	Others <sup>b</sup>	12(6.2)	7.83±2.62			2.60±0.69			4.75±0.45		
Sexual related Characteristics											
Having sexual relationship	Yes	177(90.8)	7.02±2.32	4.326	<.001	3.03±0.65	-0.260	.795	4.35±0.88	2.619	.010
	No	18(9.2)	4.50±2.68			3.07±0.58			3.77±1.00		
knowing about ECPs	Yes	60(30.8)	7.58±2.45	3.064	.002	3.00±0.67	-0.533	.595	4.50±0.65	2.386	.018
	No	135(69.2)	6.43±2.38			3.05±0.63			4.21±0.98		
Using ECPs before	Yes	14(7.2)	8.07±1.49	3.715	<.001	2.86±0.42	-1.039	.300	4.57±0.51	1.154	.250
	No	181(92.8)	6.61±2.43			3.05±0.65			4.28±0.92		
Education for ECPs before	Yes	101(51.8)	7.67±2.03	5.538	<.001	3.10±0.61	1.421	.157	4.44±0.81	2.310	.022
	No	94(48.2)	5.84±2.54			2.97±0.66			4.14±0.97		
Want to know about ECPs	Yes	172(88.2)	6.81±2.42	0.375	.708	3.04±0.65	0.325	.745	4.38±0.80	2.652	.014
	No	23(11.8)	6.60±2.80			3.00±0.59			3.65±1.30		
Contraceptive preparation	Never	39(20.0)	7.02±2.48	1.405	.234	2.98±0.58	1.140	.339	4.38±1.04	1.018	.399
	Sometimes	18(9.2)	6.11±1.64			3.04±0.52			4.05±0.93		
	Usual	52(26.7)	6.59±2.41			2.97±0.60			4.19±0.76		
	A little	29(14.9)	6.27±2.67			3.27±0.60			4.51±0.68		
	Always	57(29.2)	7.28±2.51			3.02±0.75			4.31±1.00		

<sup>†</sup>Scheffe test, ECP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이 ( $F=7.378, p<.001$ )와 학년( $F=6.640,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가 21세 보다 22세가 23세 보다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특성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t=4.326, p<.001$ )와 응급피임약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t=3.064, p=.002$ ), 응급피임약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t=3.715, p<.001$ )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t=5.538, p<.001$ )가 지식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이 ( $F=4.035, p=.008$ )와 학년( $F=5.332, p=.008$ ), 종교( $F=3.280, p=.022$ ), 동거인( $F=4.288, p=.01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세가 23세보다, 3학년이 4학년보다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톨릭보다는 기독교일때, 친구와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일반적인 특성에서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873, p=.009$ ). 성 경험관련 특성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t=2.619, p=.010$ ), 응급피임약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t=2.356, p=.018$ ),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t=2.310, p=.022$ )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있는 경우( $t=2.652, p=.014$ )가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12점 만점에  $6.78 \pm 2.46$  점으로 나타났고,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4 \pm 0.64$  점, 사용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0 \pm 0.9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Knowledge, Attitudes, & Intention to use ECPs (N=195)

Variables	M±SD	Min-Max	Range
Knowledge	6.78±2.46	0-11	0-12
Attitudes	3.04±0.64	1.3-4.5	1-5
Fear of misuse	2.75±0.97	1-5	1-5
Health concerns	3.91±0.82	1.5-5	1-5
Easy accessibility	2.35±0.80	1-5	1-5
Intention to use ECPs	4.30±0.90	1-5	1-5

ECP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3.3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 사용의도의 상관관계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 $r=.165, p=.021$ ), 태도( $r=.155, p=.03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s, & Intention to use ECPs (N=195)

Variable	Knowledge r(p)	Attitudes r(p)	Intention to use ECPs r(p)
Knowledge	1		
Attitudes	-.144(.044)	1	
Intention to use ECPs	.165(.021)	.155(.031)	1

ECP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3.4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성특성 중 성관계 경험여부, 응급피임약 인지여부, 응급피임약 교육경험,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 $\beta=-.23$ )와 태도( $\beta=.15$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가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13.4%였다( $F=5.272, p<.001$ )(Table 4). 자료는 정규분포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Tolerance 0.73~0.96, VIF 1.03~1.3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Intention to use ECPs (N=195)

	B	S.E	$\beta$	t	p
(Constant)	5.488	.687		7.987	<.001
Grade*	-0.136	.077	-.123	-1.764	.079
Having sexual relationship knowing about ECPs	-0.393	.222	-.126	-1.773	.078
Education for ECPs before	-0.181	.136	-.092	-1.332	.184
Want to know about ECPs	-0.180	.133	-.100	-1.355	.177
Knowledge	-.664	.190	-.237	-3.484	.001
Attitudes	.042	.029	.114	1.461	.146
	.018	.008	.150	2.184	.030

$R^2=.165$ , Adjusted  $R=.134$ ,  $F=5.272$ ,  $p<.001$

\*Dummy variable: Grade(0=1st).

ECP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 일반적인 특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학년, 종교와 동거인에 따라 태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 사용의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지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정도가 많아지고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성관련 특성에서 성경험이 있는 경우, 응급피임약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응급피임약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경우, 응급피임약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있는 경우 사용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12점 만점에 6.78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의 지식을 측정된 연구에서 5.03점[13]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74점[2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76점으로[15]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52점으로[24]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다. Yu[25]의 연구에 의하면 여고생들의 45%, 대학생의 13.2%, 미혼여성들의 7.15%가 응급피임약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교육 경험이 있다고 관련 지식을 모두 습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51.8%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응급피임약의 교육요구도는 88.2%로 높게 나타나 성관계 경험의 확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응급피임약에 대한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포함한 교육은 응급피임약 사용의 증가와 남용을 예방하고 그릇된 성문화를 절제하여[11] 건강한 생식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

균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연구에서 2.94점[13], 여고생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60점[23],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65점으로 나타난 결과[24]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체계적인 건강관련 교육을 통해 응급피임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응급피임약의 태도 중 하위 영역인 남용의 두려움, 구입의 용이성, 건강염려 중 구입의 용이성에서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건강염려에서 '나중에 임신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13]와 유사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중 구입의 용이성에 포함되는 구입의 장소나 구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응급피임약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며, 구입하는 과정과 절차의 편리성이 응급피임약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5]. 또한 추후 임신을 원할 때 부작용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응급피임약의 원리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되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응급피임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구입방법과 절차, 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0점으로 나타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3]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사용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도 응급피임약 사용의도가 54.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사용의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대학생의 피임방법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장점,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피임방법, 사용의도와 선택이유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지식과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응급피임약 사용의도는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23]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6.78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74

점으로 낮게 나타나[23] 응급피임약에 대한 낮은 지식이 사용의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피임약의 무분별한 사용증가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향후 건강상태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태도가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3.4%였다. 다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나타낸 결과라 생각된다. 응급피임약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습득이 필요하다. 교육참여는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야 가능하며 정보습득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응급피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같은 불필요한 처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응급피임약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약사, 간호사, 보건교사,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자 등은 응급피임약의 정보와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응급피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와 사용의도를 파악하고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응급피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응급피임약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으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피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http://www.cdc.go.kr>
- [2] H. J. Kim & S. Y. Choi. (2018). Status of Use of Menstrual Hygiene Products and Genital Organ Hygiene Management in Un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3), 265-275. <https://doi.org/10.4069/kjwhn.2018.24.3.265>
- [3] H. Y. Kim. (2019).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384-393. <https://doi.org/10.5762/KAIS.2019.20.5.384>
- [4] J. A. Kim & J. Y. Lee. (2014).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0(3), 71-80.
- [5] I. S. Lee, E. H. Park & J. J. Lee. (2006). A survey of attitude sex of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49(1), 157-167.
- [6] C. I. Jo. (201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and Sexual Behaviors: Any Causal Effec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188-209.
- [7] M. I. Rodriguez, K. M. Curtis, M. L. Gaffield, E. Jackson & N. Kapp. (2013). Advance supply of emergency contraception: A systematic review. *Contraception*, 87(5), 590-601. <https://doi.org/10.1016/j.contraception.2012.09.011>
- [8] K. Gemzell-Danielsson. (2010). Mechanism of action of emergency contraception. *Contraception*, 82(5), 404-409. <http://dx.doi.org/10.1016/j.contraception.2010.05.004>
- [9] K. S. Ryu, M. S. Lee, Y. H. Kim, S. H. Ban & M. H. Choi. (2018). How Does Advance Provision of Emergency Contraceptives Affect Contraceptive Use and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3), 255-265. <https://doi.org/10.4040/jkan.2018.48.3.255>
- [10] I. A. Okewole, and A. O. Arowojolu. (2005). "Single dose of 1.5 mg Levonorgestrel for emergency contra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89(1), 57-58.
- [11] M. J. Nam. (2015). Efficacy and side effects of emergency contraceptives in the literature. *Personalism Bioethics*, 5(2), 167-188.
- [12] Chatterjee S. R. (2012). "Emergency Contraception - Use and Misuse", <https://yourhealthofima.wordpress.com/2012/05/01/emergency-contraception-use-and-misuse>
- [13] K. H. Kim, S. J. Kim, J. E. Kim, Y. S. Seo, J. I. Cjoi,

- H. J. Hwang & H. K. Choi. (2015).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9(1), 21-33.
- [14] E. S. Lee, H. Moon & T. H. Kim. (2012).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Us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Pill.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17(1), 99-110.
- [15] G. M. Lee, H. J. Koh & H. Y. Kim. (2013). Unmarried Mother'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2), 99-107.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2.99
- [16] E. Y. Oh. (2019). Factors Affecting on Contracep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of Health and Non-health Depar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2), 261-270.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261
- [17] J. H. Choi, K. E. Kim & M. A. Shin. (2010).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3), 511-522.
- [18] S. M. Koo & H. J. Kim.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1-11.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1
- [19] S. W. Hwan & C. W. Chung. (2011).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married Female and Male,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7(1), 77-87.  
https://doi.org/10.4069/kjwhn.2011.17.1.77
- [20] K. S. Ryu, M. S. Lee, Y. H. Kim, S. H. Ban & M. H. Choi. (2018). How Does Advance Provision of Emergency Contraceptives Affect Contraceptive Use and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3), 255-265.  
https://doi.org/10.4040/jkan.2018.48.3.255
- [21] H. S. Kang & L. Moneyham. (2008).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nd condoms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5), 775-783.
- [22] H. S. Kang. (2007). Development of a Scale for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U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3), 1153-1163.
- [23] H. S. Kang. (2009).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ttitude, and Intention of High School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336-343.
- [24] H. S. Kang. (2008).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f High School Health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2), 713-725.
- [25] Miller, L. M. (2011). College student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contraception*, 83(1), 68-73.  
https://doi.org/10.1016/j.contraception.2010.06.005
- [26] H. S. Yu. (2015). Reflection of female perspectives on an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Personalism Bioethics*, 5(2), 25-56.

#### 김 미 혜(Mi-Heyi Kim)

[경력]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석사 졸업
- 201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졸업
- 2015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정신건강, 성인

건강

· E-Mail : mixedbetty@nate.com

#### 김 혜 진(Hye-Jin Kim)

[경력]



- 2014년 8월 : 창원대학교 보건학 석사 졸업
- 2020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졸업
- 2019년 3월 ~ 2021년 3월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1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인간중심간호

· E-Mail : 325khj@cs.ac.kr